한국공연 10년 MAMMA MIA

26일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맘마미아' 한국 공연 10주년 기념 무대에는 영국 오리지널 팀 배우들과 최정원 등 한국 버전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Dancing Queen'을 불렀다.〈신시컴퍼니 제공〉

올핸 오리지널 'Dancing Queen'에 관객 열광

'아바' 노래 22곡으로 구성
33개 도시 1287회 공연 171만명 관람

'아바' 노래 22곡으로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의 백미는 커튼콜이다.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은 도나, 타샤, 로지가 'Dancing Queen'을 부르며 등장하면 객석은 자연스레 콘서트장으로 변한다.

'맘마미아' 오리지널 영국 팀 공연이 진행중인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커튼콜 때 세 명의 영국 배우와 함께 한국 '맘마미아'에 최장기 출연했던 최정원·전수경·이경미가 'Dancing Queen' 을 부르며 등장하자 객석은 열광했다.

중년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인 뮤지컬 '맘마미아' 한국 공연이 지난 25일로 10년을 맞았다.

해남 출신 공연 프로듀서 박명성씨가 이끄는 신시컴퍼니가 제작한 '맘마미아'는 지난 2004년 1월25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첫 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33개 도시에서 171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공연횟수는 1287회, 매출액은 1070억원에 달한다.

한국 공연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역시 평균 객석 점유율 93%로, 9만5000여명을 동원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3월 23일까지 계속되며 3월28일부터 4월13일까지는 대구 오페라하우스로 옮겨 진행된다.

'맘마미아'는 남녀간의 사랑 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우정, 엄마와 딸의 애잔한 마음 등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온 이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 감정을 배가시키는 게 바로 귀에 익숙한 아바의 노래들이다. 여기에 소피와 스카이의 풋풋한 사랑도 함께 어우러져 유쾌함을 더한다.

실의에 빠진 도나를 위해 좋았던 한 시절을 기억하며 친구들이 'Chiquitita'를 불러줄 때는 지나간 시절의 회한과 현재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진다. 특히 아빠 문제로 서먹해진 엄마가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 장면에서 부르는 'Sleeping with my fingers'에서는 울컥하는 관객들이 많았다.

3월 23일까지 오리지널팀 무대로
박명성 감독 "내년 '아리랑' 공연 큰 힘"

오리지널팀의 공연은 아바의 노래가 갖는 매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영국 배우들은 특히 폭발적인 가창력보다는 극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감정을 고조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주인공 도나역을 맡은 사라 포이저의 맑은 목소리와 로지를 맡은 수 드배니의 감초 연기가 돋보였다. 또 'Gimme Gimme Gimme', 'Under attack' 등 템포가 빠른 곡을 부를 때 분위기를 띄우는 앙상블들의 조화로운 연기가 눈에 띄었다.

이날 커튼콜 후 무대에 오른 박명성 신시 컴퍼니 예술감독은 "한국 공연 10년 동안 성원해준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맘마미아'의 성공으로 차범석 원작의 '산불', 신경숙 원작의 '엄마를 부탁해'를 만들 수 있었고 내년에는 '아리랑'을 제작하는 등 창작뮤지컬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이 끝난 후 박칼린씨의 사회로 열린 리셉션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연극인 손숙·김성녀, 강부자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맘마미아 한국공연 10주년'을 축하했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청소년 연극 '늘품 2기' 발표회 오세요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늘품 2기' 공연 발표회〈사진〉가 28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늘품아카데미는 중고생 17명이 참여, 매일 3시간 5주 코스로 신체훈련, 연극이론, 연기실습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직접 연극을 제작 및 발표하는 워크숍 공연으로 독백공연 '유리동물원'(서솔비 각화중 1년), '오셀로'(이선호 성덕고 1년) , '베르나다 알바의 집'(정취윤 대성여고 3년) 그룹연기 '굿닥터', 낭독공연 '어린왕자' 등 다양한 작품들을 옴니버스로 구성해 선보인다.

시립극단은 문화인재 양성 및 연극의 저변 확대를 위해 늘품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발표회 후에는 수료식도 열린다.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춘추' 겨울호 노벨문학상 엘리스 먼로 작품세계 분석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 '문학춘추' 겨울호(통권 85호·사진)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캐나나 작가 엘리스 먼로의 소설과 작품세계를 분석했다. 문학평론가인 중앙대 이명재 교수가 '노벨문학상 작품론'을 주제로 엘리스 먼로의 작품에 드리워진 자전적 삶과 서사세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또 다른 특집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다형 김현승 시인'을 주제로 문학가들이 다형의 시와 삶을 다뤘다. 곽광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현승의 고독'을 분석했고 김인섭 숭실대 교수는 '김현승 시인의 삶과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했으며, 문순태 작가는 '내가 만난 김현승 선생님'을 토대로 다형의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했다.

이어 문학관기행에서는 수필가 탁현수씨가 '다산의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소통과 흐름으로 피워낸 다산의 실학사상을 집중 분석했다. 이밖에 유승우 시인 외 28명의 시와 박종록 작가의 동화, 조연탁 시조시인 등 4명의 시조가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

월간 예향 2월호

근대문화유산 국내외 현장사례
콘텐츠계의 질주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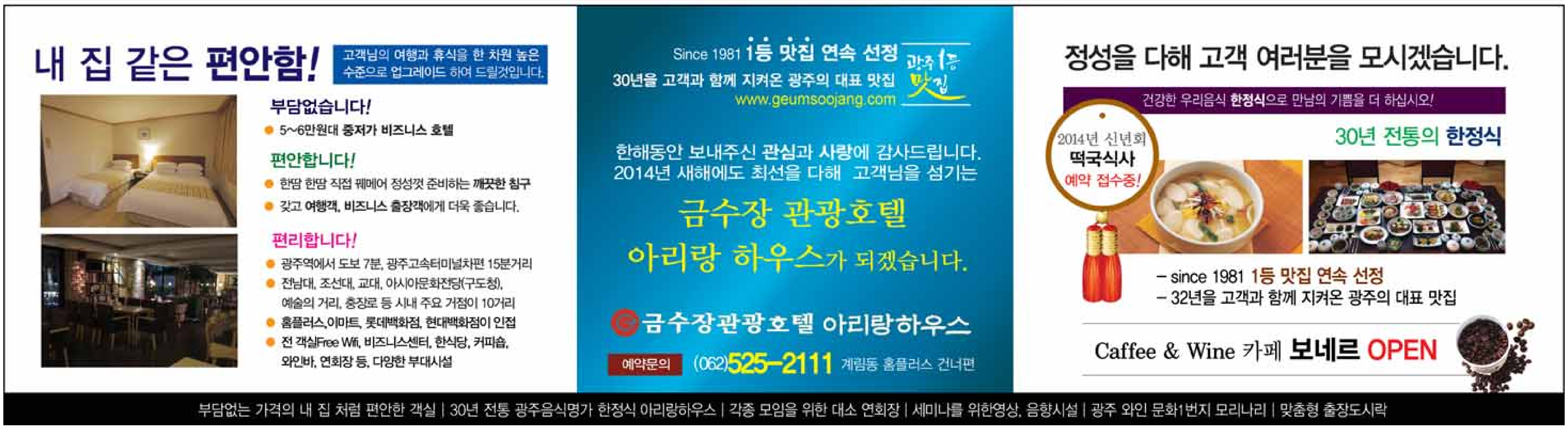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 2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는 도시재생 자원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사례를 국·내외 선진지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집 '떠오르는 도시재생 키워드 근대문화유산'에서는 광주 양림동과 목포·군산의 근대의 거리를 비롯한 중국 상하이, 일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양림동과 목포의 유서깊은 건물과 그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기획 '웹툰(webtoon)의 질주'는 포털사이트에서 보는 만화에서 벗어나 출판·영화 등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가능성을 열고 있는 웹툰의 세계를 조망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웹툰 '열두살 삼촌' 등 광주지역 웹툰 창작실태도 진단했다.

남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新남도문화여지도'는 민속의 보고이자 원형질이 살아있는 진도의 문화현장과 예술혼을 조명한데 이어 간재미, 봄동 등 찰지고 기름진 진도맛도 곁들였다.

'예향초대석'에서는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를 만나 '인간이 그리는 무늬'로 대변되는 그의 인문학 정신과 철학자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달의 아티스트' 주인공은 이현세 광주시향 신임지휘자다. 그에게 시향의 정상화 방안, 시향운영 계획 등 지휘자로서 포부를 들었고, '마주앉은 책과 삶'은 1990년대 히트작 제조기로 통해던 주철환 PD의 삶을 실었다.

이외에도 영랑문학상을 수상한 '무등산을 닮은 시인' 범대순 선생과 올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문학과 함께 해온 삶의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쇼콜라티에가 들려주는 수제 초콜릿의 세계는 달콤하고 흥미롭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